

‘소상공인 손실보상’ 과제 1순위… 大·中企 동반성장 확산

尹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기대
중소기업 정책, 민간주도 재설계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추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중소기업 정책, 민간주도 재설계, ▲새로운 동반성장 모델 확산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1호 공약이었던 ‘온전한 손실보상’은 110대 국정과제 중에서도 ‘제1 과제’에 올랐다.

인수위는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에 대해 데이터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담보·보증대출, 부실 우려 채권까지 종합적이고 선제적으로 지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원하는 긴급구제식 채무조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을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동시에 노란우산공제 및 고용보험 지원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 사회안

전망을 확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인수위가 발표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 따르면 윤 정부가 출범하고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피해지원금과 손실보상금 등을 소기업, 소상공인에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조만간 뚜껑이 열릴 실제 지급 금액은 당선인이 대선때 약속한 ‘50조 원+α’가 아닌 이보다 훨씬 적은 ‘33조 1000억 원+α’가 될 것으로 보여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지원’ 중심의 중소기업 정책을 기업의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성과창출형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기에는 ▲업종 및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 기업승계 제도 합리적 개선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 확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제조 디지털 전환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미래형 선도 스마트공장 추가 보급 ▲중소기업

전용 R&D 대폭 확대 ▲민간기업과 SW·데이터 등 디지털 인력 10만명 양성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 구축 ▲중소기업 생산성 특별법 제정 등의 내용이 두루 담겨있다.

이를 통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1단계 이상 공장을 2021년 23% 수준에서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소 제조업 매출액 대비 R&D 비중을 1.9%(2020년 1.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 현재 2262곳인 ‘수출 1000만 달러’ 달성 중소기업도 2400곳으로 늘린다. 이노비즈, 벤처 등 비수도권에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 비율도 지난해 41%에서 향후 45%까지 확대한다.

불공정거래·기술탈취를 근절하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도 확산한다.

불공정거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 권한과 조정안의 효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술탈취 근절과 피해기업 보호를 위해 피해기업의 입증지원 강화, 손해액

산정 현실화 방안을 마련한다. 기술보호 정책보현 보장범위도 확대한다.

신 동반성장도 추진한다. ‘상호 윈윈형’ 동반성장 모델을 발굴, 확산하고 성과공유제도 확대한다. 상생결제도 더욱 활성화한다.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기업으로 성장을 위한 벤처 생태계 조성에도 힘쓴다. 창업중심대학 확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신설, 팁스(TIP S) 프로그램 확대, 인수합병(M&A) 투자 제한 완화,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가동, 규제자유특구 2.0 도입, 사업전환 체계 선진화 등 제도전 환경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인수위는 “2027년까지 모태펀드 규모 대폭 확대해 ‘세계 3대 벤처 강국’을 달성하고 규제자유특구 고도화를 통한 일자리 5000명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도 제고할 것”이라며 “5년간 사업전환 1200개사, 재창업자 6000명 등 재도약 성공기업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이성희 부이사장(왼쪽 5번째)이 위원들과 1차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진공, 안전경영 자문 ‘안전경영위’ 개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3일 오전 경남 진주 본사에서 제1차 안전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전경영위원회는 정부의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안전경영 분야 심의 및 자문기구다. 위원회는 중진공의 안전경영책임계획 세부 이행 방안 등에

심의와 검토를 진행하고, 안전경영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제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이성희 중진공 부이사장이 위원장을 맡고 외부 전문가 2명, 노동조합 추천 1명, 내부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꾸려졌다.

/김승호 기자

중기부, 탄소감축 경영에 5000억 지원

기보 통해 ‘탄소가치평가보증’ 공급
직·간접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들의 탄소감축 경영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4월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한 기업에게 올해 총 5000억원 규모의 ‘탄소가치평가보증’ 공급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용 연료를 바이오매스 등의 탄소저감 연료로 전환하거나 고효율 설비에 투자해 공정을 개선하는 기업, 탄소저감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제품 생산 기업 등 직·간접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거나 감축이 예상되

는 모든 기업이다.

탄소가치평가보증은 탄소중립 실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후대응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기보가 개발한 ‘탄소가치평가모델’을 적용해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고 이를 보증지원금액에 추가 반영, 기업이 탄소저감을 하는 데 필요한 경영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기부는 보증이용 기업에 보증비율을 최대 100%까지 상향한다. 또 탄소감축률에 따라 보증료를 0.2%포인트(p)에서 최대 0.4%p까지 감면한다.

특히 탄소저감 노력의 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평가된 기업은 현재 낮은 매출

수준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금에 대해 최대 2억원까지 보증을 지원받는다.

기업은 탄소가치평가보증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이 어느 수준인지, 어떤 분야에서 탄소저감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중기부 박상용 벤처혁신정책과장은 “탄소가치평가보증이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직면한 기업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선제적으로 탄소저감을 위한 체질개선을 유도한다”며 “기업들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오늘의 날씨

5월 4일 (수)
음력: 4월 4일

수도권 날씨
11~25°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연천 8/24, 동두천 9/25, 가평 5/26, 파주 7/23, 서울 11/25, 양평 7/26, 인천 12/21, 수원 12/23, 용인 12/23, 평택 7/25, 백령도 11/18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공영흡소핀 창업기업 아이디어 공모전

공영흡소핀이 전국 청년, 지역 중심의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벤처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공영흡소핀은 ‘2022 우수 아이디어 및 창의혁신 제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공모전을 통해 10개 기업 제품을 선정한다. 대상 1팀 1000만원, 우수상 9개 팀 각 500만원 씩 총 5500만원의 상품개발 지원금을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CJ대한통운 ‘혁신 아이디어’ 청년 인재 발굴

CJ대한통운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인재를 발굴한다.

CJ대한통운은 물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실에서 구현가능한 아이디어를 주제로 ‘물류혁신 아이디어 PT대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마감은 오는 23일이다.

지원자는 프로세스 혁신, 신사업 모델, 플랫폼 개발, 물류 솔루션, ESG, 비용절감 등 물류 관련 전 분야에 걸쳐 자유롭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이 PT대회에는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 또는 재학생 중 내년 1월내 졸업 예정자가 개인 또는 3인 이하 팀을 꾸려 신청할 수 있다.

접수한 제안서는 물류업에 대한 이해와 주제 적합성, 창의성, 완성도, 현업 적용 가능성 등 활용도를 평가할 예정이다.

CJ대한통운은 입상자 전원에게 소정의 상금과 함께 CJ대한통운 채용 지원 시 서류전형과 적성검사, 1차면접 면제의 특전이 부여된다.

/김승호 기자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코로나 주간 위험도 2주째 ‘중간’… “감소세 한달 이상 지속” /사진 뉴시스
▲ 한국 언론자유지수 180개국 중 43위… 1위는 노르웨이



▲ 검찰, ‘노동절 집회’ 혐의 양경수 위원장 징역 10개월 구형 /사진 뉴시스
▲ 현대중공업 노사, 임금협상 재개…노조 2곳 새째 파업

▲ 코로나 특수 누리고 탈루한 마스크 업체 사주 등 89명 세무조사
▲ 대검, 검수완박 국무회의 의결에 “헌법 소송 포함 모든 법적 수단 검토할 것”